

# 전주시의회, 2조5718억원 내년도 예산안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수정 예산안 360억원 삭감 수정 가결

전주시의회가 18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3,337억원, 특별회계 2,381억원을 포함한 모두 2조5,7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지난 15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360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을 보면 백석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 1억원, 전주기업관 취업지원 사업 2억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료화 공사 13억원, 가로등조도 및 에너지효율개선 50억원, 한국전통음식정원 조성 1억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올 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2조3,337억원, 특별회계 2,381억원을 포함한 모두 2조5,7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종료했다.

## 도시농업 연계 노인일자리 확대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년 80명 규모 운영

전주시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농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호준)과 협력해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도시농업 컨설턴트 사업단 34명과 '스물팔 관리사' 사업단 46명 등 도시농업 관련 2개 사업단, 총 80명 규모로 운영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지난 2022년 10명과 비교해 8배 늘어난 수치다.

먼저 '도시농업 컨설턴트' 사업단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복지관과 교육기관 등에 조성된 도시농업 공간을 관리하고, 도시농업·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이다.

사업단은 시니어 텃밭관리사 양성을 통해 운영되며, 농업기술센터는 시



전주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농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어 텃밭관리사들이 옥상 텃밭과 상자텃밭, 자투리 텃밭, 실내 정원 등의 도시공간 속 텃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시정홍보강화(1,000만원)와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1억 5,000만원), 소규모관광 활성화 사업(1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2억1,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10억원) 등은 일부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9차례 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33건의 시정질문과 10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이기동 의장은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의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며 "2024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관련 교육을 사전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스물팔 관리사' 사업단은 지역 초등학교에 조성된 스물팔과 화단을 관리하고, 학교에서 텃밭과 관련해 진행되는 작물 심기·수확 체험을 보조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이다.

스물팔 관리사 사업단 참여자들도 도시농업 컨설턴트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도시농업교육을 수료한 후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니어클럽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시농업 관련 두 사업단에 참여할 만 60세 이상 전주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탄생

### 신애자 침선장 보유자·이상호 판소리장단 보유자 2명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인 전주시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 2명의 무형 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가 추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침선장 신애자 씨와 판소리장단 이상호 씨, 2명이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상반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현지 조사를 거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인정 예고됐으며, 최근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확정됐다.

이로써 전주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42명 및 3개 보유단체 등 총 51개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신애자



이상호

받았다.

故 이상근 판소리장단(고법) 보유자의 아들인 이상호 판소리장단 보유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판 소리를 통해 국악계에 입문했으며, 2000년 당대 고수의 등용문인 '순천 전국팔마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명고 반열에 올랐다.

이 보유자는 대통령상을 받은 후 고향인 전주지역에서 판소리 원형 발표회 고수와 전주세계소리축제 고법 반주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도립국악원 학예연구실 교수로 활동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고법 교재를 집필하는 등 일반 고법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새롭게 두 분이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살아온 삶이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전주시는 소중한 무형문화 재산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분산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7구 이상 거주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201곳을 올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



소를 부여했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장순찰감시 활동 나서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회장 임종근) 산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김순정)은 지난 15일 아중지구 노동부청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보호활동은 지역 내 영업 중인 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 출입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안내스티커 부착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금 등을 안내했다.

이날 활동은 각 음식점과 편의점에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정 감시단장은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순찰감시 활동은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계도·계몽하고 미개선 시 기관에 행정고발하게 되며,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을 요구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인플루엔자·코로나19·폐렴구균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최근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폐렴구균에 감염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으로 진행하면 치명률이 60~80%까지 증가하는 만큼 폐렴구균 23가 다량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구균의 경우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층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며,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예방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13세 미만 어린이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폐렴구균의 경우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다량백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노인과 표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4~6세 이하의 어린이가 무료 접종대상자이다.

접종은 전주시 33개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예방접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51)와 덕진보건소(063-250-3913), 천년전주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